

# 강진 신마항 '물류 중심항' 된다

## 2012년까지 400억 투입 3천t급 화물부두·방파제 등 건설

### 제주 연결 최단거리...갑골 등 물류 비용 절감 기대

강진군 마량면 신마항이 강진~제주 간 물류를 담당하는 서남권 중심 물류항으로 개발된다.

강진군 등에 따르면 지난 98년 연안항으로 지정된 신마항 일대 86만여㎡에 사업비 400억원을 투입, 2012년까지 서남권의 대표적 물류항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연안항은 물류를 담당하는 항으로 주로 화물선 등이 배를 대며 고기잡

이 어선들이 입출항하는 어항과는 구별된다.

신마항에는 3천t급(1선석) 화물선이 정박할 수 있는 화물부두(100m)와 관리부두(70m), 방파제와 호안시설(335m), 진입도로(225m) 등 항만 시설이 건설된다.

국토해양부는 당초 2003년 실시계획까지 완료,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예산 확보가 늦어지면서 사

업 시기가 지연돼 왔다.

여기에 지난해 인접한 마량~완도 고금 간 연륙교가 완공됨에 따라 철부선 부두 건설 취소 설계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돼 착공이 늦어졌다.

이에 따라 군은 당초 개발 예산인 499억을 400억원으로 축소하고, 오는 2010년부터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강진군은 신마항 개발이 완료되면 제주산 갑골 등 연간 10만t의 물동량을 취급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하

고 있다.

신마항은 제주를 연결하는 최단 거리 연안항으로, 인근 완도항보다 제주까지 소요시간이 50분 이상 단축된 2시간 정도(완도~제주간 한일카페리 1호 기준)면 가능해 물류비용의 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강진군 관계자는 "신마항은 제주항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개발이 완료되면 서남권 해양물류 거점의 중심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

## '자연속 愛' 화순 쌀 첫 출시

화순군이 지역 대표 브랜드인 '자연속 愛' 쌀을 첫 출시했다.

'자연속 愛' 화순 쌀은 군과 계약 재배한 농가에서 생산한 벼만을 엄선해 최신택 도정과정 등 엄격한 미질 관리 과정을 통해 생산하고 있다.

화순군은 '자연속 愛' 쌀을 전남

10대 브랜드 쌀로 육성하고 향후 전국적인 경쟁력을 갖춰 명품 쌀로 우뚝 서게 만들 계획이다.

화순군은 지난해부터 농약을 살포하지 않는 농가와 계약재배를 맺고 농협연합 RPC에 건조저장 및 저온저장시설 개보수비 8억5천만원을 투자, 명품 쌀 생산을 위한



기반을 완벽하게 구축했다.

'자연속 愛' 화순 쌀은 500g짜리 시식용을 비롯, 2kg, 10kg 포장 등 3종류로 판매된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 곡성 5일시장 이설 현대화 사업 시동

### 95억 들여 실시설계 착수...건물 신축 등 내년 말 개장

곡성군 곡성은 5일시장 이설 현대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곡성군은 이설 현대화 사업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마치고 이설 부지 매입과 성토 등 기반정리 작업을 마무리했다.

곡성은 5일시장 이설현대화 사업은 내년 2월 말까지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고 장옥 신축공사에 착수해 내년

말 개장된다.

현재의 시장에서 300여㎡ 떨어진 곳에 들어설 새 시장은 국비 63억원과 군비 32억원 등 95억원을 들여 2만 5천768㎡부지에 현대화된 시설로 꾸며진다.

기존 곡성은 5일시장은 시설이 낡은 데다 부지가 도로보다 2m나 낮아 해마다 집중호우 때 침수피해를 입고

시설 노후와 주변 교통 혼잡으로 고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곡성은 5일 시장이 현대화되면 연간 40여만명에 이르는 섬진강기차마을 관광객들을 유인, 주말 관광형 장소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곡성군은 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인회를 조직하고 회원 벤치마킹과 교육을 집중 실시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펴고 있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 도농기원 국산 신제품 장미 개발

전남농업기술원이 새로운 국산 신제품 장미를 개발했다.

농기원이 개발한 장미 신제품은 붉은색 계통인 전남 R-47호와 진분홍색인 전남 R-52호로 장미재배농가와 종묘 관련 종사자, 화훼공판장 경매사, 대학교수 등이 우수품종 평가회

를 열어 최종 선발했다.

전남 R-47호는 벨벳 톤의 적색이며 '스탠더드' 계통으로 꽃 줄기의 길이가 70cm이고, 개화 기간이 긴 특성이 있다.

전남 R-52호는 '스프레이' 계통으로 진분홍색이고 꽃봉오리 수가 5개

이며 원가투병에 강하다.

이번 평가회에서 선발된 전남 R-47호, 전남 R-52호는 내년 2월 국립종자관리소에 품종보호 출원을 해 농가에서 재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기원은 외국 품종 재배로 인한 로열티 부담을 덜기 위해 지금까지 한마을(적백색), 이노센스(백분홍색) 등 10개 신제품 장미를 육성해 농가에 보급했다.

/송기희기자 song@kwangju.co.kr

## 김중식 해남군수 '민심 탐방' 눈길

### 농공단지·김 양식장 등 찾아 애로 청취

"군민 애로사항, 현장에서 듣고 해결합니다"

김중식 해남군수가 최근 경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민생탐방에 적극 나섰다.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친 김 군수는 최근 농공단지 및 김 생산현장 등을 잇달아 방문, 군민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김 군수는 지난 19일 화산과 송지면의 전복과 김 양식 현장, 물김 위관장 등을 돌며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김 군수는 또 18일에는 옥천농공단지를 방문해 농공단지협의회 원과 현장 대화를 갖고 "농공단지 업체 생산제품을 관급 자재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농공단지 입

주 업체가 어려움 없이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지원에 온갖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낡은 기반시설을 점검한 김 군수는 내년에 25억원을 들여 오·폐수처리장, 단지 내 울타리와 보도블록 등을 시설해 주기로 약속했다고 군은 전했다.

김 군수는 "전국적인 경제난이 농촌 지역 제조업은 물론 농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안타깝다"며 "군민의 체감경기를 직접 느끼보고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자"고 각 분야의 현장 방문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

**강진신문 주회춘 국장**  
**제주 고대항로 책 펴내**

우리 조상들이 서남해안 지역과 제주 일대 바다에서 해양을 개척했던 숨겨진 이야기가 책으로 나왔다.

주회춘(43) 강진신문 국장이 펴낸 '제주 고대항로를 추적한다'(주류성정)는 해양 역사서로 고대에서부터 고려, 조선시대를 거쳐 60~70년대 제주도로 이주해 정착한 호남사람들의 생활상 등이 실려 있다.

주 국장은 "서남해안 해상문화원은 고대부터 모든 문화가 사통팔달로 통하던 곳"이라며 "이같은 역사성을 체계적으로 살펴 나가면 이 일대가 한반도의 새로운 중심지로 다시 부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



**LG화학 나주초교에 희망의 학교 도서관 건립** LG화학 나주공장이 지난 18일 나주초등학교에 '희망의 학교 도서관'을 건립했다. LG화학 나주공장은 나주초등학교에 1억원의 비용과 도서를 지원, 학교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펼치고 있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 '행복 나주 이동봉사단' 주민 향해 출발

나주시가 노인과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한 차원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성된 '행복나주 이동봉사단'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나주시는 최근 노안면 금안리 마을회관에서 '행복 나주 이동봉사단' 발대식을 열고 원스톱 통합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봉사단은 시 보건소와 위생과 등 시청 공무원은 물론 지역 의료기관, 전기안전공사, 가스협회, 가전업체 센터 등 20여개 기관·업체 관계자 50여명으로 구성됐다.

봉사단은 혈압체크 등 간단한 보건진료와 이·미용, 집수리, 빨래 등 가사지원, 전기와 가스, 수도, 가전제품

등의 수리와 수선 등 각종 민원을 도맡아 처리한다.

시는 이달 노안면을 시작으로 연말에는 다시면과 공산면 등 3개면에서 서비스를 벌인 뒤 내년 초부터 19개 읍·면·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태구 주민생활지원과장은 "한번 출동으로 모든 민원을 깔끔하게"라는 구호처럼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원스톱 서비스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주=최승희기자 srchoi@

## 장성군-경기 과천시 '도·농 상생' 자매결연

장성군과 경기 과천시가 도·농 상생을 위해 손을 잡았다.

이 청 장성군수와 여인국 과천시장은 양지역 인사 100명은 지난 21일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교류사업 협약식

을 체결했다.

지난 9월 자매결연을 맺은 장성군과 과천시는 이번 협약으로 문화와 산업, 농산물 직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게 된다.

양 자치단체는 각종 기념일과 축제 등 문화행사에 대표단과 문화예술단을 파견하고 청소년 현장체험과 주민들간 상호교류에 나선다.

특히 농특산물 직거래와 농업인들의 교류활동을 활성화하기로 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도시 유통기반도 다지게 됐다.

/장성=류종선기자 yjs52@

**'따뜻한 겨울...' 자원봉사 돌입**

담양군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2008 따뜻한 겨울만들기' 자원봉사 활동을 펼친다.

담양군은 관내 47개 자원봉사 단체의 신청을 받아 다음달 12일까지 어려운 이웃들에게 김장김치 담궈주기, 비닐배, 도배·장판 교체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벌인다.

/담양=노정훈기자 cjoh17@

**뚜껑이 열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나이트 광주첨단 3,000명**

11월 25일

**박현빈**

11월 27~28일

**김수희**

12월 4~5일

**설운도**

**후박박 나이트 OPEN** 광주첨단·폭스존옆